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A Comparison of Time Use and Time Famine for Male and Female
Employed and Unemployed College Student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시간강사 박은정**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
Lecturer Park, Eun J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time use and time famine among college students ages 18 to 29, with a focus o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ime famine. Data were from the 2014 Time Use Surve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ed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on work and less time studying than the unemployed, and females spend significantly more time on household work and less time on leisure than males. Second, employed students had higher levels of time famine than unemployed students. Third, irrespective of employment status, the education level of students' parents was identified as a determinant of time famine. Other determinants of time famine were age, job, work, and study time for employed students and gender, income, household work, and leisure time for unemployed students.

Key Words : 대학생(college students), 시간사용(time use), 시간부족감(time famine), 성별(gender), 취업여부(employment statu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0927).

** 주저자, 교신저자 : 박은정(dana060107@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7년 68.9%로, 2009년 77.8%에서 2017년 8.9%p 감소되었으나 고교졸업생 10명 중 7명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통계청, 2018).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2015년 한국의 고등교육¹⁾단계의 GDP대비 공교육비는 1.8%로 OECD 평균(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각 단계별 양육비용 추정에서 자녀의 연령단계 중 대학시기의 금액이 가장 많았고, 대학생(18-21세) 자녀에게 4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2003년 5,097만 7천원, 2006년 5,865만 6천원, 2009년 6,811만 2천원, 2012년 7,708만 8천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의 고학력화 현상과 더불어 대학생 자녀 1명당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이후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용돈 등을 지원받는다면 경제적 빈곤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알바몬 조사(노컷뉴스, 2017)에 의하면, 대학생 4,273명을 대상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67.2%가 현재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54.8%)가 가장 높았고, 향후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 계획에서 94%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활비, 용돈을 벌기 위해(88.8%), 부모님 등 가족들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것(37.2%)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 결과(통계청, 2015)에서 대학생이상(대학교, 대학원

제학 중인 학생) 노동시간은 1시간 4분으로 나타났고, 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대학생자녀의 시간사용에 연구(이용관, 2016)에서도 노동시간은 2004년 85분에서 2009년 92분, 2014년 102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는 대학생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음이 뒷받침된다. 이외에도 대학 제학 중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으로의 진입을 위해 근로경험을 가지기도 하고,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차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체계가 구축, 사내대학, 계약학과, 재직자특별전형제도 등으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김진모, 2011; 교육부, 2015a, 2015b; 박지영·이희수, 2019; 안준기·배호중, 2011).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은 비취업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와 상이할 수 있고, 근무일과 등교일여부에 따라라도 시간배분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취업대학생의 근무일 및 등교일은 노동과 학습이 공존하여 이루어지고, 학교활동과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비근무일과 비등교일에는 필수생활과 학교외학습 등 다른 활동별 시간사용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비취업대학생의 등교일은 학습시간을 중심으로 수면과 여가활동 등의 시간사용이 이루어지며, 비등교일은 학교활동시간이 감소되어 다른 활동 시간배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간사용은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여부 외에 성별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여성은 가사노동,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은 노동과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연구에서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성역할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검증되고 있다(김선희, 1994; 서지원·양진운, 2017; 최남숙·유소이, 2002).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중·고등학교시절과는 다른 생활양식으로 전환되어, 고교시절까지 가정의

1) 고등교육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대학을 제외)

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가해지던 제약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이용관, 2016; 최남숙, 2005). 즉 대학생활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학습시간에 편중되기보다는 대학교의 수업 시간과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전반적인 생활을 스스로 결정 및 선택하여 시간사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시기의 시간사용과 다르게 구성되어 상이한 생활양식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대학 입학의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에(박선주·박수정, 2016) 개인의 효율적인 시간사용배분이나 시간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 대학시기의 시간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황수정, 2018)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 경제활동 참여자의 경우 학습 외에 노동이라는 이중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에너지의 분배문제(김희숙·이기영, 2016), 시간관리 문제 등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노동과 학업병행에 따른 시간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진모, 2011). 다시 말해, 취업대학생의 학업과 직장병행에 대한 이중부담은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건강 등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는 시간부족 감지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과 노동시간으로 다른 활동의 시간 확보 어려움과 시간 제약이 시간부족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은 이들의 학업성취, 피로감, 건강, 스트레스, 대학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성이 있는 점(Brint & Cantwell, 2010; Gunthorpe & Lyons, 2004; Robinson & Godbey, 1997; Roxburgh, 2004; Stinebrickner & Stinebrickner, 2003; Zuzanek, 1998, 2004; 안준기·배호중, 2011; 이정미·이길재, 2015)을 감안할 때,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을 근무일과 등교일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생활세계를 정확히 포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삶을 조망해 볼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시간사용 연구(강인자·김혜연, 2005; 김우찬·이윤석, 2009; 김희숙·박은정, 2012; 류지수, 2007; 박민자·손문금, 2007; 박정윤·전유진, 2016; 송유진, 2013; 이용관, 2014; 정재기, 2007; 정혜지, 2015; 최남숙·유소이, 2002)는 대부분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특정 활동영역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자녀의 시간사용 연구가 다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초·중·고·대학생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오만석, 2010),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선희, 1994; 서인주, 2010; 이용관, 2016; 최남숙, 2005)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시간자료를 수집하여(이주희·박순희, 2008; 서인주, 2010; 최남숙, 2005)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의 특징적인 모습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용관(2016)은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자녀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고, 경제활동참여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였다.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시간사용이 크게 다를 수 있고, 더욱이 근무일과 등교일 여부에 따라서도 시간사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사용은 주관적 시간부족감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근무일과 등교일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근무일과 등교일여부의 변수가 추가되어 취업대학생과 비취업대학생의 생활시간사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조망하여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 및 정책적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대학생의 생활시간연구

대학생의 생활시간연구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과 정부의 공신력 있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를 보면, 최남숙(2005)은 서울 및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9명의 시간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04년)에서 밝혀진 대학생의 시간사용과 분석결과를 비교해서 생리적 필수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은 더 적었고, 의무생활시간(학업, 가사노동, 노동)은 더 많으며, 이동시간 및 기타시간이 통계청의 시간사용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결과를 연구자는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파악했는데, 통계청의 조사가 시간대별로 활동내용을 기록하여, 각 활동별로 시간수를 더하여 구하였던 것에 비해, 이 연구의 조사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생활내용의 영역을 제시하여 각 영역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질문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주희와 박순희(2008)는 대학생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관리를 서울과 지방대학생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지방대학생은 하루생활 영역 중 생리적시간과 여가관련시간이 더 많은데 비해 서울지역대학생의 학습관련시간이 많다는 점과 지방대학생이 서울지역대학생과 비교할 때 일이나 공부에 대한 목표와 계획행동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의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서인

주(2010)는 이들 두 변수의 관련성과 건강관리,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생의 건강관리활동과 여가활동의 균형 잡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황수정(2018)은 대학 1학년의 시간사용양상과 예측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시간사용양상은 평범형, 봉사형, 사교형, 가족형, 참여형의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시간사용패턴에 성별, 고교내신등급, 가계소득, 진로결정여부, 전공계열, 전공만족도, 대학소재지, 대학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2017년 학교교육 실태조사자료 중 1학년 22,410명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시간활동별 측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학습활동, 교내외 근로활동, 수업 외 활동 등 각 활동에 대해 일주일동안 평균적으로 사용한 시간의 양이 1시간미만부터 30시간초과까지 8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 값을 이용하였다. 그는 각 활동별 8점 리커트척도를 투자한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각 구간의 마지막 값을 해당 활동시간으로 재코딩하였다. 따라서 각 활동별 시간을 1시간미만(1시간), 1-5시간(5시간), 6-10시간(10시간), 11-15시간(15시간), 16-20시간(20시간), 21-25시간(25시간), 26-30시간(30시간), 30시간 초과(35시간)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의 시간사용양상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오만석(2010)은 한국 학생들의 시간사용실태를 초·중·고·대학생의 학교급별로 비교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나 다른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에 대학생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고, 교제 및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에 고등학생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시간사용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학습시간의 감소, 사교육의 초등교육으로의 이동, 극히 적은 봉사활동시간, 가사노동에서의 남녀 간 차이, 교제 및 여가활동이 TV시청

이나 컴퓨터 게임 등 특정 활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관(2016)은 대학생자녀의 행동 결정에 자원의 제공자인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학생에서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학습 및 여가유형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고, 학습시간에 있어서 자녀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자녀일수록 게임 및 TV 이용시간은 적게 나타나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의 시간사용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녀세대의 자원 활용이 불평등 재생산의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는 성별, 취업여부, 요일 등이 보고되고 있다. 성별은 시간사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중요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데(김선희, 1994; 김영숙·김지현, 2000; 배상훈·한송이, 2015; 서인주, 2011; 황수정, 2018), 김선희(1994)는 대학생의 시간사용에 대한 요일별 성차 분석에서 평일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았고, 주말은 여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자대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사노동에 할애한 시간과 소극적 여가(TV시청, 인터넷 사용시간)시간이 많으나 남자대학생은 노동에 할애한 시간과 스포츠 활동시간이 더 많은 점이 나타났다(김영숙·김지현, 2000; 서인주, 2011). 배상훈과 한송이(2015)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외활동시간이 많다고 보고하였고, 황수정(2018)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범형보다 사교형과 참여형의 시간사용패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들 두 유형은 평범형보다 수업외활동시간, 자기개발활동시간, 휴식 및 친교활동시간 등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시간사용은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여부를 보면 청소년(15-24세)의 시간배분에

대한 국제비교(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연구(김기현 외, 2009)에서 비교대상 6개 국가들의 시간배분과 한국을 비교해서 비취업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참여 및 봉사활동, 스포츠활동시간 등이 매우 짧은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취업자의 학습시간이 외국보다 매우 짧았는데, 이는 평생학습측면에서 청소년기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들의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취업자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매우 짧은 시간은 사회진출이 건전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사료하였다. 이용관(2016)은 대학생의 시간사용 추이를 생활시간조사 3개년도 자료(2004년, 2009년, 2014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노동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대학생의 경제활동 참여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제활동참여를 하나의 관련변수로 처리하여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제활동참여는 노동시간에 대한 증가를 보인데 비해 수면, 학습,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경제활동참여는 이들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률이 높은 점에서 취업요인은 주목받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취업여부와 관련된 시간사용 연구(Aliprantis & Chen, 2015; Amato, 2015; Kalenkoski & Pabilonia, 2009)는 분석대상자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고, 분석자료는 ATUS의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집단의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비취업집단의 수면, 가사노동, 학습 및 과제시간, TV시청 및 컴퓨터 시간, 미디어시간, 휴식 및 여가시간 등이 취업집단보다 길게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 활동별 시간량 차이가 있었다.

요일에 따른 시간사용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관(2016)은 요일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여 대학생의 시간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요일은 수면, 학습시간, 여가시간에 유

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평일과 비교할 때 일요일 수면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학습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학생의 요일별 시간사용 실태(김외숙·이기영, 2015)에서도 요일에 따라 수면, 학습, 여가시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일에 비해 대학생의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은 주말에 증가하였고, 학습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일과 시간사용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생활시간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여 왔다(김기현 외, 2009; 서인주, 2010; 오만석, 2010; 이용관, 2016; 최남숙, 2005; 황수정, 2018). 그러나 연구자의 개별적 자료수집과 시간측정 방법(서인주, 2010; 이주희·박순희, 2008; 최남숙, 2005), 그리고 분석대상자를 초·중·고·대학생 청소년 전체로 포함(오만석, 2010)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의 생활세계를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청소년시기도 학교급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생활세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학교급에 초점을 맞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표성을 갖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외숙·박은정, 2012). 통계청에서 조사한 대규모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시간사용을 분석한 연구(이용관, 2016)가 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고, 성별, 경제활동참여여부, 요일을 관련변인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조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시간사용이 성별, 취업여부, 근무일과 등교일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을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대학생의 시간부족감

모든 인간의 행동은 시간소비와 진행되는 불가분의 관계로, 시간사용은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이 있다. 하루 24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는 객관적

시간배분이 있다면 시간을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시간부족감이 있다(김외숙, 2012). 인구집단별 시간부족감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이들의 시간부족감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관심 받아왔다(김주희·이기영, 2015; 박은정·이성림, 2013; 손문금, 2004; 차승은, 2008, 2010, 2015; 최혜지, 2007). 때문에 대학생의 시간부족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생활비와 학자금 마련, 진로 탐색,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터넷 등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황수정, 2018) 근로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시간부족감 수준은 높을 수 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수업과 동아리활동 참여, 그리고 취업준비와 관련된 학원수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주관적 시간부족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생활조사결과(2015)에 따르면, 생활시간에 대한 의식은 10세 이상 국민 중 평소시간 부족정도는 국민의 59.4%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30대 집단(77.0%)이 가장 높았으나 10대와 20대 집단도 각각 63.8%, 71.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10-20대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본 시간부족감 연구는 전무한 관계로 청소년 또는 대학생과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 1인가구, 성인으로 확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이후의 청소년의 시간부족감 변화추이를 살펴본 김외숙(2017)은 청소년의 시간부족감 수준이 10년 전보다 감소한 점은 긍정적 측면이나 고등학생의 시간부족감은 3점대로 여전히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입시준비의 비중이 큰 교육환경에서 고등학생은 높은 수준의 시간부족감을 지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청년 1인가구의 시간부족감 연구(서지원·양진운, 2017; 송혜림·강은주·김

민주, 2018)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한 단일문항을 이용하였다. 서지원과 양진운(2017)은 25-39세의 비혼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취업변수 중 시간제 근로, 격주 1일 휴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건강상태, 의무시간 변수 중 일 및 학습시간, 여가시간이 주관적 시간빈곤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밝혔다. 연령을 20-30대로 규정하고 청년 1인가구의 시간부족감을 살펴본 송혜림 외(2018)에 의하면, 청년 1인가구의 시간부족감 수준은 4점 만점에 2점대(2.03점)로 부족감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로는 성별, 취업여부, 연령, 요일, 건강상태,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성별을 보면 시간부족감 차이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감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김외숙·박은정, 2018; 김진욱·고은주, 2015)가 있는 반면 청년 1인가구의 주관적 시간빈곤 연구(서지원·양진운, 2017)에서는 성별이 시간빈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부족감의 성별 간 상이한 기존연구를 감안할 때,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취업여부와 노동시간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의 근로활동과 학업 성취 및 대학만족도의 연구(Brint & Cantwell, 2010; Stinebrickner & Stinebrickner, 2003; 안준기·배호중, 2011; 이정미·이길재, 2015)에서 대학 재학 중의 근로활동 참여 및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시간이 줄어들어 학업성취와 대학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점을 볼 때 대학생의 경제활동참여가 이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시간부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즉 대학 재학 중 경제활동참여는 학업과 일의 이중부담으로, 이들의 시간부족감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요일변수도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살

펴본 연구(김외숙 외, 2016; 차승은, 2011)에서 취업 남성과 취업여성 모두 주말에 비해 평일의 시간부족감인식이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일변수 대신에 근무일과 등교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 출석강의 등의 학습활동 스케줄을 다소 자유롭게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교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배분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일변수 대신에 근무일여부에 따른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령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학교급별 시간부족감 분석(김외숙, 2017)에서 고등학생의 시간부족감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연령이 이들의 시간부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도 시간부족감과 관련성이 있는데, 청년 1인가구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시간빈곤 경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서지원·양진운, 2017), 피곤함 정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점(통계청, 2015)을 감안할 때 대학생의 건강상태도 시간부족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과 시간부족감과의 연구를 보면 노동시간이 많은 일중심형의 유형이 시간부족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는데, 이 유형에 서비스판매직과 관리전문직 분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정열·손영미, 2014). 남녀의 시간압박 관련요인을 탐색한 연구(차승은, 2010)에서는 여성의 경우 생산노동직과 비교해서 사무 및 서비스직이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전문직 역시 생산노동직 종사자에 비하면 시간압박을 약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과 시간부족감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배경인 가족형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부모학력 및 소득)도 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빈곤한 경제적 환경 뿐 아니라 양부모가정과 비교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감소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인적 자본투자활동(학습 및 독서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carini, Pasqua & Romiti, 2014; 박민자·손문금, 2007; 여성가족부, 2015). 배상훈과 한송이(2015)는 가계소득과 대학생의 활동별 시간을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학습과 자기개발시간이,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활동시간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활동시간이 시간부족지각으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 및 사회교류의 장도 보다 생산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이용관, 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자녀의 학습시간, 독서시간, 문화활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송유진, 2013; 이용관, 2016, Chin & Phillips, 2004; Wight et al., 2009). 이를 토대로 보면 가족배경인 가족형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자녀의 시간사용 뿐 아니라 시간부족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변수도 시간부족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1인가구의 학습시간은 주관적 시간빈곤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졌고(서지원·양진운, 2017),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빈곤 경험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시간소비의 측면에서 활동수가 증가할수록 시간표상에서 활동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부족을 지각하게 되는데(차승은, 2011) 여러 가지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즉 유급노동을 비롯하여 가사노동은 시간부족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외숙·이기영, 2015; 차승은, 2011). 반면 서지원과 양진운(2017)에 의하면, 청년 1인가구의 시간빈곤에 가장관리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가시간의 경우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여가와 자유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시간활용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차승은, 2011)와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주관적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원·양진운, 2017). 즉 학습, 가사노동, 여가시간의 시간변수와 시간부족감은 연

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변수와 시간부족감의 다소 상이한 기존결과를 볼 때 시간변수가 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성별의 시간부족감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취업여부와 노동시간, 요일,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형태와 부모학력 및 소득, 시간변수인 학습시간, 가사노동, 여가시간이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맞벌이부부, 기혼취업여성인 시간부족감의 주요 분석대상으로 실시되어 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을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만 1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2일 동안 시간일지를 기입하게 되는데, 2014년 생활시간조사

에서는 27,7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53,976부의 시간일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18세 이상 30세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미혼자녀이고, 대학에 재학 중인 비농가 시간일지 1,240부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연령을 30세미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연령이 30세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이후 학교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용관, 2016). 분석대상의 자료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만 18세 이상 30세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미혼자녀이고, 대학에 재학 중인 비농가 시간일지를 선택하였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소득)과 가족형태가 대학생자녀의 취업여부와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자료를 추출하였다. 부모자료는 기혼자의 가구주와 배우자를 추출하여 부모자료(양부모가족)를 일치시켰고, 가구주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의 부모자료(한부모가족)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자녀자료와 부모자료를 가구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서로 통합하여 최종적인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조사 당시 기혼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존재하여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다.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변수는 경제활동상태에서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을 취업집단,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비취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취업집단의 경우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분석대상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여 취업형태도 감안하여 살펴보았다. 취업형태를 보면 시간제근로 집단이 7할(71.7%)을 차지하였고, 전일제근로 집단이 1/5이상이었으며,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5.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집단은 정규취업의 전일제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근로 형태가 많다는 점을 밝힌다.

대학생의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시간으로 대분류하였고, 필수생활

시간은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를 포함하였으며, 의무생활시간은 노동, 가사노동, 학습(학교수업, 학교외수업)을, 여가시간은 참여봉사, 교제, 미디어, 종교, 문화관광, 스포츠, 기타여가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시간을 학교수업과 학교외수업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간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단일문항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1점)에서 항상 여유있다고 느낌(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시간부족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변수, 시간변수, 가족배경의 독립변수를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학생의 성별, 연령, 근무일과 등교일여부, 건강상태이고, 시간변수는 학습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이 공통적인 변수이며, 취업대학생의 경우 직업과 주당노동시간의 취업변수를 포함한 차이가 있다. 가족배경으로는 가족형태(양부모, 한부모)와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의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자인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0.75세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18-20세, 21-29세의 두 집단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근무일과 등교일여부 변수는 취업대학생의 경우 근무일과 등교일은 학교수업이 있고 일도 하는 날이고, 비근무일과 비등교일은 학교수업이 없으며 일도 없는 날을 의미한다.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등교일은 학교수업이 있는 날을 의미하고, 학교수업이 없는 날은 비등교일을 말한다. 여기서 취업대학생의 등교일과 비취업대학생의 등교일은 학교수업이 있는 것이다. 또한 취업대학생의 주당노동시간은 지난 1주간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노동시간으로 $M \pm 0.5SD$ 값을 기준으로 나눈 세 집단(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학생의 취업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을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통계의 분석은 PWSA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전체대학생 중 성별에 관계없이 약 30%는 취업을 하고 있고, 이들의 주당노동시간은 평균 24.71시간이었으며, 대학생의 취업여부에 따라 성별, 연령, 가구소득, 모의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취업대학생을 보면, 여성(59.9%)이 남성(40.1%)보다 많았고, 연령은 20세이하집단(55.2%)이 21세이상집단(44.8%)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분포를 보이나 취업여부에 따른 연령 차이는 없었다.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약 3/5(57.1%)의 분포를 보이고, 시간제근로자(71.7%)의 취업형태가 특히 많았다. 주당노동시간의 경우 중집단과 하집단이 3/4정도의 비중이며, 상집단의 비중도 1/4정도였으며, 가구소득은 200-400만원미만집단과 400-600만원미만집단이 30%대의 분포를 보였다. 모학력은 고졸집단(60.6%)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대졸이상집단(27.6%)이었으며, 중졸이하집단(11.8%)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비취업대학생은 남성(53.2%)의 비율이 여성(46.8%)에 비해 다소 높았고, 연령은 21세이상집단(51.1%)의 분포가 약간 많았다. 가구소득은 200-400만원미만집단과 400-600만원미만집단이 30%내외를 차지하며, 600만원이상집단이 27.9%로 나타

났다. 모학력은 초대졸이상집단이 1/3(35.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중졸이하집단(8.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대학생에 비해 초대졸이상집단의 분포는 더 높는데 비해 중졸이하집단의 분포는 낮았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

취업여부별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은 근무일과 등교일여부에 따라 활동별 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을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 사용의 성차 분석

취업대학생과 비취업대학생의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사용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다.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기타개인관리, 가사노동, 학교의 학습, 여가시간, 스포츠 및 기타여가영역에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먼저 취업대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고, 필수생활과 의무생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활동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기타개인관리와 학교외학습에 사용한 시간량이 30분내외로 많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2배 유의하게 많았다. 반면 전체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성의 스포츠 및 기타여가시간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과 연관된다.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분류활동은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생활시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타개인관리의 중분류활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의무생활시간의 성별간 시간 차이는 42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

〈표 1〉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n=1,240)		취업 (N=357)		비취업 (N=883)		X ² / t	
		N	%	N	%	N	%		
대학생 특성	성별	남성	613	49.4	143	40.1	470	53.2	17.644***
		여성	627	50.6	214	59.9	413	46.8	
	연령	18-20세	629	50.7	197	55.2	432	48.9	3.983*
		21-29세	611	49.3	160	44.8	451	51.1	
		M(SD)	20.75	2.23	20.56	2.18	20.82	2.24	
	직업	전문직			42	11.8			-
		사무직			36	10.1			
		서비스판매직			204	57.1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75	21.0			
	취업형태	전일제근로			81	22.7			-
시간제근로				256	71.7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20	5.6				
주당 노동시간	상집단(33시간 이상)			96	26.9			-	
	중집단(18-32시간)			128	35.9				
	하집단(18시간미만)			133	37.2				
	M(SD)			24.71	15.33				-
건강상태	M(SD)	3.54	.83	3.49	.84	3.56	.83	1.306	
가족 배경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1,054	85.0	296	82.9	758	85.8	1.848
		부자가족	55	4.4	17	4.8	38	4.3	
		모자가족	131	10.6	44	12.3	87	9.9	
	가구 소득 (단위: 만원)	200미만	124	10.0	23	6.4	101	11.4	9.663*
		400미만	391	31.5	128	35.9	263	29.8	
		600미만	386	31.1	113	31.7	273	30.9	
		600이상	339	27.3	93	26.1	246	27.9	
	부학력	중졸이하	79	7.1	21	6.7	58	7.3	1.424
		고졸	507	45.7	152	48.6	355	44.6	
		초대졸이상	523	47.2	140	44.7	383	48.1	
모학력	중졸이하	108	9.1	40	11.8	68	8.0	8.253*	
	고졸	687	58.0	206	60.6	481	56.9		
	초대졸이상	390	32.9	94	27.6	296	35.0		

*p<.05, ***p<.001

노동과 학교외학습시간에 할애한 시간이 더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 전체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는 남성의 스포츠와 기타여가활동시간이 많은데 비해 여성의 교제시간이 더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다.

취업대학생과 비취업대학생의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사용을 보면,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은 가사노동, 기타개인관리, 학교외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남성은 전체여가시간, 스포츠 및 기타여가활동에 할애한 시간이 많았다. 취업여부별로 세분하여 보면,

(표 2)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

구분	취업대학생 (N=260)				비취업대학생 (N=386)			
	남성 (N=110)	여성 (N=150)	차이	t	남성 (N=199)	여성 (N=187)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645.82	672.13	-26.31	1.919	638.54	645.83	-7.29	.702
수면	473.18	474.73	-1.55	.121	454.37	445.88	8.49	.905
식사 및 간식	104.18	99.93	4.25	.807	109.05	107.54	1.51	.365
기타개인관리	68.45	97.47	-29.02	7.218***	75.13	92.41	-17.28	5.156***
의무생활시간	431.91	452.73	-20.82	1.101	386.08	427.59	-41.51	2.687**
노동	296.45	282.33	14.12	.573	.20	1.07	-0.87	1.121
가사노동	14.27	29.07	-14.80	3.450**	10.40	24.01	-13.61	4.213***
학습	121.18	141.33	-20.15	.919	375.48	402.51	-27.03	1.698
학교활동	79.45	68.27	11.18	.727	248.14	244.28	3.86	.280
학교외학습	41.73	73.07	-31.34	2.475*	127.34	158.24	-30.90	1.986*
여가시간	221.73	175.67	46.06	2.893**	239.20	192.99	46.21	3.704***
참여봉사	1.91	.40	1.51	.906	4.72	2.83	1.89	.565
교제	44.00	55.13	-11.13	1.796	52.06	67.22	-15.16	2.838**
미디어	72.45	78.33	-5.88	.588	82.71	85.08	-2.37	.291
종교	3.36	2.80	0.56	.186	.45	1.23	-0.78	.830
문화관광	5.64	3.47	2.17	.719	2.51	5.56	-3.05	1.389
스포츠	23.73	8.67	15.06	3.357**	22.21	10.16	12.05	3.520***
기타여가	70.64	26.87	43.77	5.022***	74.52	20.91	53.61	8.293***

* $p < .05$, ** $p < .01$, *** $p < .001$

근무와 학교수업이 있는 날의 취업남학생은 노동시간이 약 5시간, 학습시간이 2시간이었고, 취업여학생은 노동과 학습시간이 각각 4시간 42분, 2시간 21분이었다. 반면 비취업대학생의 등교일 학습시간은 남학생이 6시간 15분, 여학생이 6시간 4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여부별 학습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대학생과 비교해서 학교활동시간은 취업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3수준이었고, 학교외학습시간에서도 취업대학생 양성 모두 1시간 25분 정도 짧아 학습관련시간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취업대학생의 여가시간이 취업대학생보다 소폭(17분) 많았을 뿐 전체여가시간 중 미디어와 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남학생이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량이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2)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사용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기타개인관리와 기타여가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우선 취업대학생은 학교수업도 없고 일도 없는 날로 성별 차이를 보인 대분류활동은 필수생활시간이었다. 여학생의 필수생활시간은 남학생보다 1시간 이상 길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의 모든 중분류활동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면에 할애한 시간이 1시간 30분정도 훨씬 길게 나타났고, 기타개인관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은데 비해 식사 및 간식시간은 남성이 여성보

〈표 3〉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사용의 성차 분석

구분	취업대학생 (N=97)				비취업대학생 (N=497)			
	남성 (N=33)	여성 (N=64)	차이	t	남성 (N=271)	여성 (N=226)	차이	t
	M	M	M		M	M	M	
필수생활시간	724.24	794.22	-69.98	3.132**	740.77	747.96	-7.19	.680
수면	511.52	600.63	-89.11	4.091***	555.57	540.53	15.04	1.390
식사 및 간식	146.06	104.22	41.84	3.729***	110.00	116.33	-6.33	1.439
기타개인관리	66.67	89.38	-22.71	2.776*	75.20	91.11	-15.91	3.926***
의무생활시간	170.00	173.59	-3.59	.120	181.37	203.58	-22.21	1.395
노동	20.00	10.63	9.37	.712	2.88	.53	2.35	1.418
가사노동	51.82	81.56	-29.74	1.840	27.01	63.36	-36.25	6.934***
학습	98.18	81.41	16.77	.599	151.48	139.69	11.79	.716
학교활동	.00	.00	-	-	2.47	2.43	0.04	.023
학교외학습	98.18	81.41	16.77	.599	149.00	137.26	11.74	.718
여가시간	417.58	359.06	58.52	1.808	415.17	380.93	34.24	2.313*
참여봉사	.00	6.88	-6.88	1.783	5.54	8.98	-3.44	.837
교제	68.79	59.22	9.57	.776	57.60	68.41	-10.81	1.923
미디어	154.85	195.16	-40.31	1.425	156.61	199.42	-42.81	3.616***
종교	20.61	10.16	10.45	.781	12.80	10.53	2.27	.453
문화관광	20.91	14.06	6.85	.758	14.06	17.30	-3.24	.785
스포츠	43.33	26.88	16.45	1.318	39.37	29.38	9.99	1.845
기타여가	109.09	46.72	62.37	2.520*	129.19	46.90	82.29	9.242***

* $p < .05$, ** $p < .01$, *** $p < .001$

다 42분 유의하게 많았다. 이에 비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가사노동과 전체여가시간, 그리고 미디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사노동의 성별간 시간 차이는 30분정도로 여성이 많았고, 전체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1시간 정도 많았으며, 미디어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분 많았다. 또한 여가시간 중에서 기타여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이상 더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수업이 없는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의 대분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고, 세부활동에서는 기타개인관리, 가사노동, 미디어, 기타여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의 기타개인관리시간이 남성보다 소폭

많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남성의 전체여가시간이 여성보다 34분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여성의 미디어시간(43분)이 많은 것과 남성이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량(1시간 22분)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에서 작용한다.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 사용을 보면,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기타개인관리시간이 더 많았고, 남성의 기타여가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 취업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성의 전체여가시간이 많은 점은 비취업집단에서도 여성이 가사노동에 할애한 시간이, 남성의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성역할 차이가 존재하였다. 반면 취업대학생은 필수생활과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개인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면과 기타개인관리시간(112분)이 유의하게 많았고, 남학생의 식사 및 간식시간이 많은 특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여부별 학교외학습을 보면, 비취업대학생보다 취업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51분, 56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도 취업대학생 양성 모두 학교외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할애한 시간은 비취업집단에 비해 취업집단(남학생 25분, 여학생 18분)이 많았다. 그리고 취업대학생의 경우 미디어활동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미디어시간(40분)이 많았고, 이러한 미디어시간의 차이는 비취업대학생에서도 여성(43분)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은 공통점이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간부족감은 취업여부와 근무일 및 등교일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의 성별 차이를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부족감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비취업집단에서 성차가 나타난 반면 취업집단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대학생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시간부족감은 각각 3.05점, 3.10점으로 3점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여학생(3.03점)은 남학생(2.77점)보다 부족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2)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부족감을 보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부족감은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표 5 참조>). 취업대학생의 경우 여성의 시간부족감 수준은 3점대(3.14점)로 남성(2.85점)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양성 모두 시간부족감은 2.63점으로 유사하였다.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의 성차를 정리하면, 취업대학생의 경우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은 양성 모두 3점대의 높은 시간부족감을 보였고, 일과

<표 4>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근무일과 등교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구분	남성		여성		차이	t
	M	SD	M	SD	M	
취업대학생 (N=260)	3.05	.83	3.10	.81	-0.05	.532
비취업대학생 (N=386)	2.77	.76	3.03	.68	-0.26	3.518***

*** p < .001

<표 5>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구분	남성		여성		차이	t
	M	SD	M	SD	M	
취업대학생 (N=97)	2.85	.80	3.14	.69	-0.29	1.879
비취업대학생 (N=497)	2.63	.84	2.63	.80	-	.086

학교수업이 없는 날의 부족감 수준은 남학생은 감소한 반면 여학생은 3절대로 여전히 부족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취업대학생은 학교수업이 있는 등교일 여학생의 시간부족감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학교수업이 없는 비등교일에는 양성 모두 부족감 수준이 감소하였다.

3.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 결정요인

대학생의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배경변수인 가족형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에는 가족형태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2에는 가족형태변수

대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시간변수는 공통적으로 포함하였고, 취업대학생의 경우 취업변수(직업과 주당노동시간)를 포함한 차이가 있다.

1) 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 결정요인

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의 종속변수에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변수, 시간변수, 가족배경변수 중 가족형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모델 1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연령, 직업, 주당노동시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6참조〉). 대학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단순노무직 등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집단의 시간부족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당노동시간이 중

〈표 6〉 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57)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	S.E.	
대학생 특성	성별(기준: 여학생)	남학생	-.125	.315	-.242	.353
	연령		.191 [†]	.081	.279 ^{**}	.107
	근무일과 등교일여부 (기준: 비근무일과 비등교일)	근무일과 등교일	-.256	.416	-.136	.481
	건강상태		-.344	.178	-.403	.209
	직업 (기준: 단순노무직 등)	관리전문직	.754	.520	.957	.636
		사무직	.416	.550	.853	.675
		서비스판매직	1.506 ^{***}	.337	1.617 ^{***}	.388
	주당노동시간 (기준: 상집단)	하집단	-.353	.425	-.363	.490
		중집단	-.961 [†]	.385	-1.412 ^{**}	.459
	시간변수	학습시간	.002	.001	.003 [†]	.001
	가사노동시간	.000	.003	.001	.003	
	여가시간	-.001	.001	-.001	.001	
가족 배경	가족형태(기준: 한부모)	양부모	-.685	.462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이상)	200미만			1.144	1.053
		400미만			.004	.432
		600미만			.228	.443
	부학력 (기준: 초대졸이상)	중졸이하			-2.992 ^{**}	.861
		고졸			-.844 [†]	.428
	모학력 (기준: 초대졸이상)	중졸이하			1.582 [†]	.790
	고졸			1.194 ^{**}	.428	
-2 log likelihood			316.317		252.998	
Chi-Square			50.727 ^{***}		66.060 ^{***}	

[†]p<.05, ^{**}p<.01, ^{***}p<.001

집단보다 상집단의 시간부족감이 높을 가능성이 유의미하였다. 모델 1에 가족형태변수 대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2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연령, 직업, 주당 노동시간, 학습시간, 부모학력으로 밝혀졌다. 대학생의 연령과 직업, 주당노동시간은 모델 1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의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부족감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학력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모의 학력은 낮을수록 시간부족감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 비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 결정요인

비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을 분석한 모델 1에서는 대학생의 성별, 가사노동과 여가시간

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7참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부족감이 높을 가능성이 유의미하였다. 모델 1의 가족형태변수 대신에 가구소득 및 부모학력을 추가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대학생의 성별,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가구소득, 부모학력은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에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대학생의 성별,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은 모델 1과 유사한 방향의 시간부족감 경험 가능성이 높았고,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집단에 비해 200-400만원미만집단 대학생자녀가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학력은 고졸집단보다 초대졸이상집단 대학생의 시간부족 수준이 높았고, 모학력은 초대졸이상집단에 비해 고졸집단 대학생이 부족감 경험 가능성이 더 높았다.

〈표 7〉 비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883)					
구분		Model 1		Model 2			
		B	S.E.	B	S.E.		
대학생 특성	성별(기준: 여학생)	남학생	-.408*	.160	-.450*	.175	
	연령		.025	.034	.015	.039	
	등교일여부 (기준: 비등교일)	등교일	-.205	.189	-.114	.206	
	건강상태		-.136	.090	-.129	.097	
	시간변수	학습시간		.001	.001	.000	.001
		가사노동시간		-.006***	.002	-.008***	.002
여가시간			-.002**	.001	-.002**	.001	
가족 배경	가족형태(기준: 한부모)	양부모	.079	.210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이상)	200미만			.795	.452	
		400미만			.683**	.233	
		600미만			.346	.200	
	부학력 (기준: 초대졸이상)	중졸이하			-.171	.414	
		고졸			-.449*	.209	
	모학력 (기준: 초대졸이상)	중졸이하			-.041	.390	
고졸				.605*	.213		
-2 log likelihood			1,082,168		906,186		
Chi-Square			86,025***		94,416***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를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세계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의 취업남학생은 노동에 약 5시간을, 학습에 2시간을 사용하였고, 취업여학생은 노동시간이 4시간 42분, 학습시간이 2시간 21분으로 성별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취업대학생의 등교일 학습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6시간 15분, 6시간 43분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시간을 세분하여 보면 비취업대학생과 비교해서 학교활동시간은 취업대학생 양성이 1/3수준이었고, 학교외수업시간은 취업대학생 양성 모두 1시간 25분정도 짧았다.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타개인관리, 가사노동, 학교외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여가시간이 더 많았는데, 이는 남학생이 스포츠 및 기타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량이 더 많은 것과 연관된다.

둘째,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취업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필수생활 시간량이 1시간이상 더 많은 성차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이 수면과 기타개인관리에 할애한 시간이 남학생보다 많은 반면 남학생의 식사 및 간식시간이 더 많은 점에서 기인한다. 취업대학생의 경우 가사노동과 전체여가시간, 미디어활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각 영역별 시간량 차이는 30분이상을 보였다. 이는 비취업대학생에서도 여학생이 가사노동 및 미디어활동에 사용한 시간량이 30분이상 유의하게 많은데 비해 남학생의 전체여가시간이 30분이상 많았다. 그리고 취업대학생과 비취업대학생 양성 모두 기타개인관리와 기타여가의 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타개인관리 시간이 많은 반면 남학생의 기타여가시간이 1시간이

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대학생과 비취업대학생 모두 학교외학습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취업대학생에 비해 취업대학생 양성이 학교외학습에 사용한 시간량이 50분이상 짧았다.

셋째,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을 보면 취업대학생의 경우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은 양성 모두 3점대로 높았으나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의 부족감 수준은 취업남학생은 감소한 반면 취업여학생은 3점대로 높았다. 반면 비취업대학생은 학교수업이 있는 등교일 여학생의 시간부족감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학교수업이 없는 비등교일에는 양성 모두 부족감 수준이 감소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부족감 결정요인은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부모학력이 대학생자녀의 시간부족감 경험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고, 취업대학생은 연령, 직업, 노동시간, 학습시간이, 비취업대학생은 성별, 가사노동과 여가시간, 가구소득이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대학생 양성 모두 학습시간이 비취업대학생에 비해 매우 짧았다. 비취업대학생과 비교할 때,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총유급노동시간(노동과 학습)은 길지만 학습시간이 4시간이상 짧았고,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도 양성 모두 학교외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50분이상 짧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의 근로활동은 학습시간 부족 및 학업성취, 그리고 대학만족도가 낮아지는 등의 결과가 존재하고(Brint & Cantwell, 2010; Stinebrickner & Stinebrickner, 2003; 안준기·배호중, 2011; 이정미·이길재, 2015) 학습몰입, 과제수행, 전공분야 탐색, 자기계발 등 학교외학습에 투자할 시간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결과(김서현, 2019; 김진모, 2011)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취업대학생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의 확보와 보다 균형적인 학습과 노동시간의 필요성이 관찰되고 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시간체험 연구(김서현, 2019)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무, 장기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외 교육근로기관 활동프로그램 참여자, 비교적 규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참여자가 학업과 노동사이의 균형이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대학교의 학교 내 근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간제근로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안정적 근로환경 구축은 지속적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학습시간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일과 학습 병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학교수업 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가사노동에서 성역할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학생의 가사노동시간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짧게 나타난 점은 청년 1인가구,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 성인취업자 등의 기존연구(김소영·진미정, 2016; 김외숙·박은정, 2018; 김외숙 외, 2016; 서지원·양진운, 2017; 송혜림 외, 2018; 이승미·이현아, 2011)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가사노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이고, 대학 졸업이후 결혼 또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의 생활 속에서 가정관리와 돌봄 등의 전반적인 가사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노동참여는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초·중·고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돌봄 영역 등 다양성이 있는 점에서 가사노동과 관련된 참여의식 및 교육은 세분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개인 스스로도 가사노동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체여가시간 중 미디어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분이상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활동에는 교제, 기타여가 등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 중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연구(송혜림 외, 2018)에서 미디어활동에 투입한 시간량이 절대적으로 길게 나타났고, 기타여가, 교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대학생의 여가시간 확보도 중요하나 여가활동 유형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대학생의 동적여가활동이 이들의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려정, 2011)을 감안할 때, 적극적 여가활동참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가가 경제적 자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활동과 관련된 제반적인 비용과 문화 및 스포츠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반적인 시설, 그리고 여가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여가역량강화 등 전반적인 여가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취업대학생은 등교일 학습에 6시간이상(남학생 6시간 15분, 6시간 43분)을 소비하였고, 여가시간이 취업대학생보다 소폭(17분) 많았을 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취업대학생과 비교해서 다른 활동영역에서의 시간배분 또는 다양한 여가활동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학습시간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3.5시간(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6)으로 조사된 것과 미국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연구에서 학습시간이 비취업대학생 2시간 40분, 취업대학생 1시간 40분정도(Amato, 201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한국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15-24세)의 시간배분 국제비교연구(김기현 외, 2009)에서 비취업 한국 학생들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은 학습시간 비중은 이들의 참여 및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이어져 이 시기에 필요하고 경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놓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

다.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학생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의 기존연구(배상훈·한송이, 2015; 조한익, 2007; 최정운·이병식, 2009)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성취 간 관련성은 미미하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학습시간은 수업참여에 정적 관련성이 있거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습시간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와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시간배분,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시간관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간사용관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관리방법을 탐색하고 습관화하여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점(김의숙·이기영, 2015)에서 이들의 시간사용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뒷받침된다. 시간사용관리교육 및 프로그램은 성별, 학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시간관리교육 전후의 조사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시간부족감을 보면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의 취업대학생은 양성 모두 부족감이 3점대로 높았고,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는 취업남학생의 부족감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여학생의 시간부족감은 3점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학교수업이 있는 등교일 비취업여학생의 부족감(3점대)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대학생의 근무일과 등교일에는 시간부족감의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노동과 학업이 공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양성 모두 높은 시간부족감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과 학교수업이 없는 날에도 취업여학생의 부족감 수준은 여전히 높았는데, 근무일 및 등교일과 비교해서 남학생의 경우 비근무일과 비등교일의 학교외학습과 여가시간의 증가가 큰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한 점은 유사하였고 가사노동은 52분 증가하였으나 학교외학습은 단 8분의 증가만 보이며 필수생활 증가량에서 여학생(122분)이 남학생(78분)보다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취

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연구(차승은, 2011)에서 취업여성의 경우 평일 시간부족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면시간이 짧았고, 휴일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의 수면시간 증가는 시간부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 덜 느끼는 집단보다 증가폭이 더 컸으며, 이는 무급가사노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점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유급노동이외에도 시간활용방식에서 시간부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여학생은 일과 학교수업이 있는 날의 가사노동이 비근무일과 비등교일로 이전되어 수행됨으로써 이들의 시간부족인식을 가중시킨 것으로 사료되고, 노동과 학교활동시간이 대폭 감소된 비근무일과 비등교일의 시간활용방식이 이들의 시간부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수업이 있는 등교일 비취업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시간부족감이 높은 점은 학교외학습시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앞서 비취업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외학습시간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난 점에서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학력은 대학생자녀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변수로 나타났고, 가구소득도 비취업대학생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연구에서 부모학력 및 소득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 자녀의 취업비율을 감소시키고, 성과창출인 학습시간량이 많으며, 봉사활동, 독서시간, 사회참여여가활동이 많은데 비해 TV시청 및 게임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Chin & Phillips, 2004; Proterfield & Winkler, 2007; Wight et al., 2009; 박민자·손문금, 2007; 배상훈·한송이, 2015; 송유진, 2013; 이용관, 2014, 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변수는 자녀의 취업과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간부족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부학력은 고졸집단보다 초대졸이상집단, 모학력은 초대졸이상집단에 비해 고졸집단 대학생자녀의 시간부족감 경험 가능성이 높고, 가구소

득은 비취업대학생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밝혀져 일부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학력 및 소득이 대학생자녀의 시간부족감과의 관련성이 관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취업대학생의 경우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서비스판매직집단이, 그리고 노동시간이 중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이 많은 일중심형에 서비스판매직의 분포가 많았으며 이 유형의 부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신체적 노동과 강도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많아 이들의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된(박정열·손영미, 2014; 안수미·이기영, 2012) 기존연구에서 뒷받침된다. 취업대학생의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이들의 부족감 경험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점은 노동과 학습의 이중부담은 이들의 시간부족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규명되고 있다. 비취업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부족감 경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사노동과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부족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연구(서지원·양진운, 2017)에서 여가시간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방향으로 시간빈곤 결정요인의 변수로 나타난 점과 일치하나 가사노동 변수의 결과는 불일치하였다.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연구(차승은, 2011)에 따르면, 시간부족집단의 여가활동이 시간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오히려 짧게 나타났으나 무급가사노동은 시간부족집단의 취업여성이 주말시간활용에서만 더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의 경우 시간부족이 높은 집단은 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여부별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 성차를 근무일과 등교일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생활세계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분석한 점에 연구의의가 있다. 가족자원관리학

에서는 생활시간의 중요성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삶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본 점에도 연구의의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 다른 지역의 입학으로 인해 1인가구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유무에 대한 변수 추가, 취업집단을 전일제와 시간제근로자로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취업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연구, 필수생활시간, 수면시간 등 활동별 시간량과 시간부족감 간의 관련성 연구, 생활시간 행동분류를 소분류의 세분항목까지 분석하여 진행하는 등 대학생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추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통계청에서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어 2020년 생활시간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이후 2019년 원자료 데이터가 생산되므로 이를 활용한 대학생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인자·김혜연(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18.
- 2)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3)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4) 김서현(2019).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여자 대학생들의 시간 체험. 한국사회복지학, 71(1), 149-177.
- 5) 김선희(1994).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 고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9, 24-52.
- 6) 김외숙(201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

- 학회지, 16(3), 133-152.
- 7) 김외숙·박은정(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9-132.
 - 8) 김외숙·이기영(2015).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9) 김외숙·이기영(2016). 가족자원관리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0) 김외숙·송혜림·조희금·김주희(201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25-43.
 - 11) 김외숙(2017). 청소년의 시간사용 및 시간부족감의 변화: 2004년과 2014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35-59.
 - 12) 김외숙·박은정(2018).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1-19.
 - 13) 김우찬·이윤석(2009).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 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29-55.
 - 14) 김영숙·김지현(2000).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경성대학교 논문집, 21(2), 389-404.
 - 15) 김진모(2011). 학업·취업 병행 여건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16) 김진욱·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17)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 18) 교육부(2015a). 선취업 후진학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세종 : 교육부.
 - 19) 교육부(2015b). 2015년 재직자·성인학습자 대상 후진학/후학습 지원사업 기본계획. 세종 : 교육부.
 - 20) 교육부(2014). OECD 교육지표 2014.
 - 21) 교육부(2018). OECD 교육지표 2018.
 - 22) 노컷뉴스(2017.6.15). 대학생 67%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 <http://www.nocutnews.co.kr/news/4799748>
 - 23) 류지수(2007). 가구특성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 시간 사용.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447-452.
 - 24) 박민자·손문금(2007).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생활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2), 93-120.
 - 25) 박선주·박수정(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과 학업계획의 차이. 교육행정학연구, 34(2), 75-95.
 - 26) 박은정·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27) 박지영·이희수(2019).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의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8(1), 97-126.
 - 28) 박정운·전유진(2016). 청소년 자녀의 생활시간 사용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35-47.
 - 29) 박정열·손영미(2014). 여성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화: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75-102.
 - 30) 배상훈·한송이(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3), 323-356.
 - 31) 서인주(2010).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여가행동에 관한 연구: 수면시간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4), 73-89.
 - 32) 서인주(2011). 대학생의 시간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학습 아르바이트 가정관리를 중심으로. 사

- 회과학연구, 28, 1-12.
- 33) 서지원 · 양진운(2017). 청년 1인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사용구조와 주관적 시간빈곤 : 부부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5(5), 451-463.
- 34)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 인식. 여성인구, 2(2), 159-198.
- 35) 송유진(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36) 송혜림 · 강은주 · 김민주(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 성별 · 취업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45-63.
- 37) 안수미 · 이기영(2012).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9-132.
- 38) 안준기 · 배호중(2011). 대학 재학시절 근로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 생계형 근로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4), 149-180.
- 39) 여성가족부(2015).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0) 이려정(2011).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간 영향연구 : 동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 · 레저연구, 23(7), 489-509.
- 41) 이승미 ·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42) 이용관(2014).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논집, 37(2), 49-78.
- 43) 이용관(2016).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대학생 자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논총, 32(1), 159-190.
- 44) 이정미 · 이길재(2015). 대학교육 만족도 및 교수학습 성과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105-127.
- 45) 이주희 · 박순희(2008). 대학생의 시간관리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지방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2), 91-120.
- 46) 오만석(2010). 한국 학생들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 299-330.
- 47) 정재기(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 생활시간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선학보, 24, 51-78.
- 48) 정혜지(2015). 가구소득이 아동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양육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조한익(2007). 대학생의 희망과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2), 349-365.
- 50)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51)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52) 차승은(2011).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 활용 :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131-151.
- 53) 차승은(201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과 관련요인의 차이 : 아내의 시간, 남편의 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5) 37-53.
- 54) 최남숙(2005). 대학생의 시간사용 만족수준과 자아정체감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81-93.
- 55) 최남숙 · 유소이(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 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6.
- 56) 최정윤 · 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57) 최혜지(2007). 기혼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시간부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19(4), 75-102.

- 58) 김승권 · 김유경 · 김혜련 · 박종서 · 손창균 · 최영준 · 김연우 · 이가은 · 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9) 황수정(2018). 한국 대학 1학년의 시간 사용 양상과 예측요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0)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
- 61) 통계청(2018). 2018년 청소년 통계.
- 62) Aliprantis, D., & Chen, A.(2015). Student employment and time use. *Economic Trends*, 12, 21.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 63) Amato, H. D.(2015). College students and time use : Do working and nonworking students spend their time differently?. Honors Program Theses and Projects.
- 64) Brint, S., & Cantwell, A. M.(2010). Undergraduate time use and academic outcomes : Result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ndergraduate experience survey 2006. *Teachers College Record*, 112(9), 2441-2470.
- 65)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6, 12, 20). American Time Use Survey. <https://www.bls.gov/tus/charts/students.htm>
- 66) Chin, T., & Phillips, M.(2004). Social reprodu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 Social class, children's agency, and the summer activity gap. *Sociology of Education*, 77(3), 185-210.
- 67) Gunthorpe, W., & Lyons, K.(2004). A predictive model of chronic time pressure in Australian population : Implications for leisure research. *Leisure Science*, 26, 201-213.
- 68) Kalenkoski, C. M., & Pablonia, S. W.(2009). Time to work or time to play : The effect of student employment on homework, sleep, and screen time. *IZA Discussion Paper NO.* 4666, 1-36.
- 69) Mencarini, L., Pasqua, S., & Romiti, A.(2014). Children's time use and family structure in Italy. *Families and Societies : Working paper Series*, 21, 1-32.
- 70) Porterfield, S. L., & Winkler, A. E.(2007). Teen time use and parental education : Evidence from the CPS, MTF, and ATUS. *Monthly Labor Review*, 130(5), 37-56.
- 71) Robinson, J. 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72) Roxburgh, S.(2004). There just aren't enough hours in the day's :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 of time pres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2), 115-131.
- 73) Stinebrickner, R., & Stinebrickner, T. R.(2003). Time-use and college outcomes. *Journal of Econometrics*, 12(1), 243-269.
- 74) Wight, V. R., Price, J., Bianchi, S. M., & Hunt, B. R.(2009). The time use of teenagers. *Social Science Research*, 38(4), 792-809.
- 75) Zuzanek, J.(1998). Time use, time pressure, personal stress,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from a life cycle perspectiv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5(1), 26-39.
- 76) Zuzanek, J.(2004). Work, leisure, time-pressure and stress. In J. T. Haworth., & A. J. Veal (Eds.), *Work and Leisure*, PP. 123-144. London : Routledge.

- 투 고 일 : 2019년 02월 13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5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5월 01일